약사불 앞 발굴하니 고려 사찰터 나왔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용화사서 현장 설명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장흥 용화사 경내에서 고려 시대로 추정되는 건물지 기초부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은석)는 5월 31일 장흥 용화사에서 발굴조사 현장설명을 열고 그간의 발굴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장흥 용화사는 통일신라 말기에 조성된 석조약사여래좌상(전남유형문화재)이 봉안돼 있고, 18세기부터 불자사터(拂子寺址)라고 알려져 있던 곳이다. 사찰과 약 500m 거리의 석교마을에는 사찰에서 사용된 대형의 석조유구가 남아 있다. 2021년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자리하고 있는 건물 앞마당에서 통일신라 소형금동불상과 납, 수정으로 만든 구슬이 발견돼 올해 4월부터 사찰 경내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용화사 경내 발굴조사 결과, 석조약사여래좌상 앞쪽 서남편에서 고려 시대에 조성된 건물터 기초부가 일부 확인됐다.

이 건물터는 주춧돌 하부의 적심석(돌을 쌓을 때 안쪽에 쌓는 돌)이 4개소, 전면 석축기단 9m, 후면 석축기단이 약 3m가 남아 있었고, 기단 앞쪽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작은 연못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건물지 내부에서는 통일신라 말~고려 시대 기와 조각과 11세기 고급 청자 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밖에도 아궁이시설과 돌로 만든 경계(石烬) 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석조약사여래좌상 앞 서남편서
10~12세기 건물지 다량 발견돼
건물지서 고려청자, 기와편 출토
장흥지역 불교 연구 필요성 높여



장흥 용화사 약사전 앞 발굴 모습. 이곳에서 10~12세기 사찰 건물지가 발굴됐다.
사진제공=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최소 3차례 이상 건물의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적으로는 10~12세기 중심의 유물로 건물지의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현재 3×1칸 건물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약사여래좌상을 모신 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현재의 용화사 주변에서 상감청자와 조선 시대 분청사기, 백자 편 등도 수습돼 꽤 오랜 기간 법통이 유지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風寺(○풍사)'라고 추정되는 기와 조각이 출토돼 사찰 명칭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오른팔과 허리 아래 부분이 결실됐지만, 부드럽고 통통한 얼굴에 미소를 살짝 머금고 있다. 약함(藥函)이 있었다고 전하는 왼손은 주름과 손톱까지 묘사하는 등 사실적으로 조각됐다. 이 불상은 남아 있는 높이가 2.5m에 이르는 대형으로, 광배를 포함하면 5m 정도의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에서 찾은 광배 파편 2개의 원 위치도 이번에 새롭게 확인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1954년에 넘어져 방치된 불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신의 아래쪽과 뒤쪽을 철근과 시멘트를 발라 지지해 놓았는데 현재 철근이 노출돼 있어 불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장흥 용화사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비슷한 규모는 경주 남산 상선암 마애여래좌상(5.2m, 9세기)이 있다. 이 시기 경주지역 불상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면 원형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일대 정비된다

중문 기단복구 등 정비 사업, 문화재수리기술위 조건부 승인

경주 황룡사지 건물지 기단복구와 남쪽광장(가칭) 일원이 정비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24일 열린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에서 황룡사지 입구의 남문과 중문 등 6개 건물지의 기단 복구와 황룡사지 남쪽광장(가칭) 정비계획 등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황룡사지와 주변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황룡사지 중문은 탱주와 면석이 있는 가구식 기단이며, 회랑지 2동은 외벌대 장대석 기단으로 이뤄졌다. 기단석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남문지와 동·서편 건물지 3동은 기단 위치를 목재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그간의 발굴조사 결과와 발굴과정에서 수습된 석재 유물을 바탕으로 기단 복구에 대한 고증·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설계에 모두 반영했다.

문화재청은 "기단복구 사업은 황룡사지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문화재 복구사업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탑지, 금당, 강당 등의 중심건물 기단복구까지 추진되면 황룡사의 규모와 배치, 각 건물의 형태와 특징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룡사지 남쪽광장은 너비 50m, 길이 500m의 대규모 공간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한 발굴조사 결과와 관련 학술대회 내용을 바탕으로 유적지 상부를 복토(약1.0m)하고 그 상부를 당시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정비한 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광장 상부면은 마사토로 다지고, 광장 남쪽 끝 지하 담장유구 상부에 담장을 일정구간 재현하고 담장 주변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한 탐방로와 수목을 심는다는 게 문화재청의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남쪽 광장이 정비되면 황룡사 진입을 현재의 측면진입 방식에서 광장-남문-중문-탑-금당-강당 순의 정면진입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서 "'동궁과 월지'(옛 안압지)와 광장으로 직접 연결돼 황룡사지 동쪽과 남쪽 도시유적과의 관계성도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맡아 올해 내로 착수하게 되며, 문화재청 수리기술위원회의 승인조건에 따라 기술지도단을 구성해 사업진행 단계별로 지도·자문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복원 조감도.

국립중앙博 불교문화재, 전문가에게 듣다

국박, 6월 큐레이터 대화 개최
반가사유 등 불교문화재 주제
6월 매주 수요일 저녁中 진행

초여름에 접어든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에게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는 체험프로그램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18:00~21:00)에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특히, 6월의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고대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 설명이 많아 불교미술에 관심이 많은 불자와 시민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의 전용 전시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전경.

주요한 불교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6월 8일 오후 6시 세계문화관 일본실에서 열리는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 오후 7시 서화관 불교회화실의 '과학으로 살펴보는 조선 불교회화와 채색안료', 6월 15일 오후 7시 조각공예관 불교조각실의 '고대 불교 조각의 아름다움' 등이다.

6월 29일 오후 6시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빛의 향연-예산 수덕사 괘불', 오후 7시 사유의 방에서 '국보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이라면 '과학으로 살펴보는 조선 불교회화의 채색 안료', '도자기의 보존과 제작기법', '서화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 관리'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 공간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PDF 형태로 제공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여름호 발간… 대만불교 특집

불교계 대표 학술계간지인 〈불교평론〉이 여름호(통권 90호)를 발간했다.

이번 여름호는 특집으로 '대만불교의 어제, 오늘, 내일'을 다뤘다. 특집 논문으로는 △대만불교의 역사와 현황(김응철) △대만의 종교지형과 불교의 위치(서대원) △대만불교의 중심 4대종문의 성립과 전개(이병욱) △코로나 상황과 대만불교 의례(김성순) △대만불교의 계율주의와 재식(齋食)(김현진) △대만불교의 국제활동 성과(양정연)가 수록됐다.

〈불교평론〉 관계자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신도를 기반으로 포교와 봉사, 불학 교육, 지계 등에



서 현대화를 이룩한 대만불교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미래를 각 분야의 학자들이 심도 있게 조명했다"면서 "대만불교의 성공사례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논단에서는 오강남 종교학자가 '표층종교에서 심층종교를 향하여'를 기고했다. 세계의 불교학자는 인도 현대불교의 부흥을 이끈 암베드까르를 조명했다.

신성민 기자

제12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12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반야학술상은 시상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교육 및 학술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추천(타천) 마감 : 2022년 7월 15일
■ 추천(타천) 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4731-3471)
우명주 (010-9027-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롱(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